

壬辰錄 作品群의 長篇化 傾向과 興味志向

辛 泰 洙

〈目 次〉

- | | |
|-------------------|-------------------|
| 1. 序論 | 4. 개별적 읽을거리의 表現美學 |
| 2. 長篇化 推移와 要因 | 5. 읽을거리 設定의 意義 |
| 3. 공통적 읽을거리의 構成原理 | 6. 結論 |

1. 序 論

壬辰錄은 40여 종의 이본이 있지만¹⁾ 이본 간의 차이가 적지 않다. 수세기를 거쳐 전승되는 동안 이본 간의 내용도 달라지고 분량면에서도 심한 격차를 보인다. 50쪽 미만의 이본이 있는가 하면 200쪽을 상회하는 이본도 있다. 분량 많은 이본일 수록 분량 적은 이본에 비해 특정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었을 것 같고, 분량 적은 이본에 없는 내용이 분량 많은 이본에 담기기도 했을 터이다. 분량이 아주 적은 이본에 비추어 분량이 아주 많은 이본이 생겨날 수 있는 이유와 분량 많은 이본에 내재한 질서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본에 따라 서술내용이 축소되고 확대되는 현상, 특정 장면이 더 있고 없는 현상을 주목하기는 해도, 분량이 많은 이본만을 별도로 고찰하거나 그 의의를 찾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인물이야기별로 분리시켜 다루는 것이 일반화되다 보니²⁾, 여러 이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기준과 잣대

1) 임철호, 『壬辰錄研究』, (정음사: 1988), 1쪽 참고

2) 이에 대해서 필자가 壬辰錄研究의 現況과 展望, 『문학과 언어』11, (文學과 言語研究會, 1990)에서 논의한 바 있다.

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분량 많은 이본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도 있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도 있으므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분량 적은 이본과의 변별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고전소설 가운데는 분량 적은 이본과 분량 많은 이본이 공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본고는 이런 소설연구에 하나의 지침이 되리라 기대한다.

주대상자료는 분량이 많은 임진록 이본이지만, 분량이 많은 이본을 어떻게 선정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주대상자료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이본과의 대비가 필요하다. 필자는 가능한 대로의 이본을 동원한 다음, 이 가운데서 분량이 많은 이본을 가려내고자 한다. 동원된 이본자료는 모두 28종이다. 소장자의 이름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자료를 제시하되 쪽수는 괄호 안에 나타낸다.

고려대본(48), 국립도서관본(66), 국립도서관본(85), 경북대본(127), 경판본(148), 권녕철본(54), 김광순본(87), 김동옥본(84), 김동옥본(93), 김완섭본(57), 박노춘본(86), 박순호본(23), 박순호본(48), 박순호본(79), 박순호본(89), 박순호본(97), 박순호본(99), 박순호본(104), 박순호본(125), 박순호본(243), 송전대본(299), 서울대본(87), 정신문화연구원본(76), 정신문화연구원본(86), 정신문화연구원본(129), 정신문화연구원본(133), 정신문화연구원본(142), 정신문화연구원본(231).

2. 長篇化 推移와 要因

각 이본은 평균적으로 한 쪽당 10행, 한 행당 20자씩이다. 이로써 분량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을 대체로 짐작할 수 있지만 표기수단이 한문으로 된 이본도 있어서 동일선상에서 가늠할 수 없게 한다. 한문본은 국문본으로 번역한 뒤 글자수를 헤아리고 여타 국문본의 글자수와 대비해 보아야만 많고 적은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터이다. 방법이야 좋지만 번거로운 것이 예상되기에 달리 묘안을 찾아야 한다. 한문본은 몇 종밖에 되지 않으므로 국문본을 중심으로 쪽수를 계산하고 여기에

의거하여 한문본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듯하다. 쪽수가 적은 이본에서 쪽수가 많은 이본 순으로 나열하기로 한다.

100쪽 미만인 이본: 박순호본(23), 고려대본(25), 박순호본(48), 권녕철본(54), 김완섭본(57), 국립도서관본(66), 정신문화연구원본(76), 박순호본(79), 김동욱본(84), 국립도서관본(85), 정신문화연구원본(86), 박도춘본(86), 서울대본(87), 김광순본(87), 박순호본(89), 김동욱본(93), 박순호본(97), 박순호본(99)

100쪽 이상 200쪽 미만인 이본: 박순호본(104), 박순호본(125), 경북대본(127), 정신문화연구원본(129), 정신문화연구원본(133), 정신문화연구원본(142), 경관본(148)

200쪽 이상인 이본: 정신문화연구원본(231), 박순호본(243), 숭실대본(299)

100쪽 미만은 18종, 100쪽 이상 200쪽 미만인 이본은 7종, 200쪽 이상은 3종이다. 이 중에서 박순호본(23), 고려대본(25), 국립도서관본(66), 정신문화연구원본(133)은 한문본이다. 한문본을 국문본으로 번역하면 분량면에서 최소한 국문본의 두 배쯤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따지면 100쪽 미만은 17종, 100쪽 이상 200쪽 미만인 이본은 8종, 200쪽 이상인 이본은 4종이고, 분량에 따라 이름을 붙이면 순차적으로 단편, 중편, 장편이라고 할 수 있다³⁾. 임진록이라는 이름을 걸고도 단편, 중편, 장편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錄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성 싶다. 錄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이것 저것 자유롭게 기록하는 양식이므로 전승자의 역량, 의도에 따라 분량이 쉽게 늘어날 수도 쉽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錄은 傳과는 구별된다. 傳은 一人一事를 다룬다면 錄은 多人多事を 다룬다. 一人一事를 선호하는 독자는 傳을 찾게 마련이고, 多人多事を

3) 임진록 이본 간의 분량을 상대적으로 따져서 분류한 것이므로 이런 분류는 본고에서만 유효하다.

선호하는 독자는 錄을 찾게 마련이다.

금일 책을 읽다가 틈이 생겨 임진 이래 8년 간의 사실을 캐보고 싶었다. 그래서 국문본 소설 중 널리 유행하는 임진록을 구해서 조목을 따라 잠심해 보니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은 임진록의 등장인물이 왕왕 축한 시 여러 장수와 같이 때문이다. 고로 그 자취를 사랑하여 임진록을 번역하고 진서 한 권으로 만든다. 여러 영웅의 일을 사적으로 삼고 제가의 행적을 줄이되 별로 어긋나고 잘못된 곳이 없으니, 책을 읽는 자라면 대개 무릎을 치면서 실감나게 표현했다고 감탄할 법하다⁴⁾.

정신문화연구원본(133)의 序를 부분적으로 인용해 보았다. 임진록의 조목조목을 따라 깊이 생각해 보니 축한 시 여러 장수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에 인기를 누리는 것 같다고 했는데, 번역자가 多人多事의 역사적 사실을 선호하기 때문에 임진록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⁵⁾. 정신문화연구원본(133)의 내용은 경판본의 내용과 흡사하다. 이로 보아 한역 대상으로 삼은 임진록은 경판본임에 틀림없다. 경판본을 한역했다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리라 여겨진다. 임진왜란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록이나 실기류 같은 史書를 택하는 것이 맞고 경판본 임진록을 택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을 소재로 하되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는 소설을 찾다보니 다인다사를 다룬 임진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널리 유행하는 경판본을 택하게 되었으리라는 편이 적절하다. 번역자는 책을 읽는 자마다 무릎을 치면서 실감나게 표현했음을 감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다인다사를 다루되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경판본의 특징이라 하겠고, 실감을 주는 책이 어야 인기를 끈다는 점을 유추해낼 수 있다.

4) 정신문화연구원본(133), 序. “今日讀書之暇 欲究壬辰以來八年實 乃求諺書播行者 逐條潛心 則許多人氣 往往如蜀漢時諸將 故愛其蹟 而觀其錄 爲眞書一卷 群英事爲蹟 諸家譜略 別無差錯 則或人看者 庶乎擊節而表其實”

5) 번역자가 自號를 竹史主人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방증이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판본은 坊刻本이다. 방각본은 민간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하는 책이므로 흥행성 있는 작품을 출판대상으로 삼기 마련이다⁶⁾. 책의 분량이 많을 경우 가격이 비싸지기에 분량이 많지 않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적인 추세이나, 분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는다. 흥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량이 많아도 출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진록 이본 중에서 비교적 분량이 많은 경판본이 선택된 것을 보면 분량이 많은 이본이라야 읽을거리가 있다고 여겨졌던 것 같다. 읽을거리가 무엇이겠는가는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판본 한역자의 입을 빌리면 多人多事를 실감나게 다룬 것이다. 역사소설에 실감을 느끼는 독자 중에는 여성도 적지 않았을 것인데, 경북대본의 말미에 “이 책은 김소저 썼노라”라는 筆寫記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여성도 상당수 임진록의 독자로서 참여했을 것이며, 더러는 책을 읽은 뒤에 얻은 실감을 오래도록 누리고자 하여 필사가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자들을 실감나게 하는 읽을거리가 무엇인지 관심사이다.

우선 경판본을 보기로 한다. 전체가 상, 중, 하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 서두에 제시된 왜국의 유래, 평수길의 탄생, 성장, 관백이 되기까지의 내력을 제외하면 상, 중 권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권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강홍립과 김웅서의 정왜, 사명당의 정왜가 이어지는데, 역사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관된다. 역사에 충실한 부분은 조선 국내에서 왜적을 물리치는 내용이라면 역사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국외에서 왜적을 응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 임진록에서는 조선 국내의 왜적을 물리치는 내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하면 경판본에서는 조선 국외에서 왜적을 물리치는 내용이 증대되어 조선 국내에서 왜적을 물리치는 내용과 거의 대등한 비중을 보인다. 경판본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00쪽 이상 200쪽 미만인 이본, 200쪽 이상인 이본이라면 어디서나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단편에서 벗어나 장편이 될수록

6) 金興圭, 『韓國文學의 理解』, (民音社, 1986), 190-193쪽 참고.

정왜장면의 서술이 늘어나고 작품 내에서의 비중이 커지므로 정왜장면이야말로 읽을거리 중의 읽을거리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이마 임진록의 작자는 민족적인 의분을 참지 못하여 현실적으로는 왜적에게 패배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승리하였으며, 왜국에 대한 비참한 패배를 당한 우리 민족의 적개심과 복수심을 대변하기 위하여 임진록을 쓰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패배한 것을 문학적으로 승리하였다고 하였으며, 사명당으로 하여금 부자지국의 항서를 받도록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도술로써 왜왕을 골탕먹이고 끝내는 부자지국의 항서를 받고 일 년에 인피 삼백 장과 부랄서 말씩 바치도록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왜적에 대한 통쾌한 복수심을 잘 표현해 놓았다⁷⁾.

사명당 정왜장면은 일찍부터 임진록에서 가장 좋은 읽을거리로 주목을 받아왔다. 인용문은 바로 그런 사정을 알려주는 한 예에 해당되는데, 사명당 정왜장면이 통쾌한 복수심을 여실히 표현하여 역사적 패배를 정신적 승리로 바꾸어놓았기에 읽을 만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진록이 정신적 승리의 문학이라는 데 대해서는 더 따져야 하겠으나, 통쾌한 복수심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그렇다고 인용문의 지적이 임진록 전체에 두루 적용될 수는 없다. 읽을거리가 노리는 바가 통쾌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편에서는 단편에 없던 특정인물의 勇力을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전승자가 읽을거리로 꾸며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하층인으로서의 객재우에 대해 단편에서는 단순히 왜선 수신택을 물리쳤다고 하는 데 비해 장편에서는 막강한 용력으로 왜선을 대파하는 모습

7)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7), 219-220쪽.

을 한층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신립, 김응서, 강홍립, 사명당 등의 인물에게서 발견된다. 이들이 행군할 때는 수백 근 철퇴와 수천 근 장창을 들고 용력이 태산을 움직인다는 식으로 표현하기 일췌이다.

인물의 용력을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論理上의 錯綜도 생기기 마련이다. 신립, 강홍립이 그런 경우이다. 이들은 어느 이본에서나 부정적으로 비치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의 용력을 긍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정적인 면을 적지 않게 희석시킨다. 단편에서 신립은 도원수인데도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사하고 말았고, 강홍립은 원정군 대장인데도 무모한 작전을 감행하고 중국에는 변절까지만 한 사람이다. 장편에서는 단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되 용력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여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용력의 확대가 부정적인 면을 희석시켜 主題上의 錯綜으로 이끄는나가 문제될 수 있다. 신립과 강홍립이 결과적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부정적인 인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용력이 대단한데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이유에 궁금증을 느끼는 독자라면 장편에 이끌려들게 되고 전승자가 내세우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기 마련이다. 장편에서는 論理上의 錯綜으로 여겨지는 것까지를 읽을거리로 마련해서 주제를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임진록 이본의 長篇化 現象은 읽을거리의 설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읽을거리가 다채롭게 마련될수록 장편화 경향을 띠고, 읽을거리가 축소될수록 중편, 단편의 경향을 띤다. 장편이 읽을거리만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단편에서 보여주는 역사에 대한 예리한 통찰, 지배층에 대한 비판, 하층인의 잠재된 역량 표출과 같은 문제의식이 열어질 여지도 생기지만, 독자에게 긴장감을 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읽을거리를 설정하므로 오히려 문제의식이 강해지는 국면을 보인다. 장편의 읽을거리는 독자의 측면에서는 흥미거리이다. 읽을거리가 모두 흥미거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읽을거리를 설정하되 흥미거리가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생긴다. 장편에서는 읽을거리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지를 살필 차례가 되었다.

3. 공통적 읽을거리의 構成原理

장편에는 단편에 없는 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단편의 다른 장면에 비해 양적으로 현저히 확대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이 바로 장편에서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읽을거리일 것이다. 왜국의 밀정 파견과 조선 異人의 대응, 이순신의 활약, 김응서와 강홍립의 암투, 시명당과 왜왕의 대결이 장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읽을거리가 된다. 공통적 읽을거리의 내용은 무엇이며 읽을거리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피기로 한다.

왜국의 밀정 파견과 조선의 대응은 아무래도 왜국 측이 주체이다. 박순호본(243)은 이런 자취가 가장 강하다. 왜장 형돌싱이 함경도에서 밀정 노릇을 하다 토정에 게 꾸지람을 듣고 경성으로 쫓겨간다. 경성의 남대문 근처에 이르러서는 행색이 남루한 소년에게 야단을 맞고 급기야는 도끼로 찍혀죽는다. 연이어 구시노, 평달이라는 밀정이 경성에 들어선다. 이들은 知人之鑑이 있는 동고에게 잡혀 철사로 묶인 채 갇은 옥을 본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 또 다른 밀정 평의지가 강원도를 거쳐 경성으로 들어서다가 이전에 暗躍했던 밀정이 피살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안동을 거쳐 본국으로 도망가려 한다. 평의지가 안동을 지나가려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선비로 인해서 정체가 폭로되고 옥을 당한다. 한편 정만평이라는 밀정이 또한 전국을 정탐하다 오봉산 도인에게 옥을 보고 본국으로 도망간다. 정신문화연구원본(231)에서는 왜국 밀정이 각각 이항복, 겸암에게 옥을 보고 쫓겨나는 사건이 이러지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박순호본(243)과 대차가 없다. 송실대본과 정신문화연구원본(133)에서는 평조익, 평조신, 평조강, 안국사 등의 밀정 여덟 명이 조선에 잠입해서 각기 한 도씩 탐지한다⁸⁾.

8) 읽을거리 설정에 있어서 송실대본과 정신문화연구원본(133)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경판본은 송실대본을 藍本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경판본을 한역한 것이 정신문화연구원본(133)이므로 읽을거리 설정이 일치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송실대본과 정신문화연구원본(133)의 읽을거리를 따질 때 송실대본만을 거론하기로 한다.

왜국 밀정은 전국에 흩어져서 활동하지만 중국에는 반드시 경성으로 모인다. 지역 단위로 탐지한 정보를 한 가지로 종합하기 위해 경성으로 모인다고 하겠는데, 밀정활동이 이 정도이고 보면 꽤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밀정이 암약하면 이를 상대하는 인물이 있기 마련이다. 박순호본(243)에서 밀정은 형돌싱, 구세노, 평달, 평의지이고, 이를 상대하는 자는 토정, 어떤 소년, 동고, 어떤 선비, 오봉산 노인 등의 이인이다. 이런 사정은 정신문화연구원본(231)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숭실대본에서는 밀정의 활동은 뚜렷한데도 이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이인이 없어서 의외이다⁹⁾.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 왜국에 수신사를 보내 정세를 탐지하는 장면이 나오므로 대응자세는 분명히 엿보인다. 왜국은 밀정으로 하여금 조선 각지의 허실을 탐지하게 함으로써 침략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고, 조선은 밀정을 징치함으로써 왜국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한다. 왜국의 침략 야욕과 조선이 대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이순신의 활약에 대해서는 장편 어디서나 상당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 임진왜란의 경과에 따라 행적을 기술하지 않고 이리저리 뒤섞어서 영웅으로서의 풍모를 드러내고자 한다. 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始末을 차근차근 풀어가기가 벅찼는지 모르지만 뒤엀킨 부분을 풀어보면 세 가닥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이순신은 무용이 뛰어나고 측근 제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전투에 나서기만 하면 선봉이 되고 지형지세를 이용해 대승을 거두는데, 이순신 이외에는 이렇게 할 자가 없다. 둘째 이순신은 전공에 상응하는 벼슬을 부릴 대로 누린다. 싸울 때마다 승리했고 이때마다 벼슬이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이처럼 능력을 인정받는 자도 흔하지 않다. 셋째 이순신은 불행한 사고를 많이 겪는다. 탁월한 능력 때문에 원군의 모함을 받고 진린의 견제까지 받아야 했으며 모친과 아들을 잃고 호천통곡하는 슬픔을 맛보았는데, 이처럼 고통을 거듭 맛보는

9) 숭실대본에서 밀정을 직접 상대하는 인물이 없는 것은 밀정활동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일 수 있다.

자가 임진록에는 더 이상 없다. 세 가닥 중 첫째 가닥은 단편, 중편, 장편 어디서나 있고, 둘째 가닥은 중편, 장편에 있고, 셋째 가닥은 장편에만 있다.

세 가닥 중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첫째 가닥이다. 개전 초기에 파죽지세로 부상하던 왜적은 하층장수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세력이 둔화되고 급기야는 해상으로 밀려난다. 일단 해상으로 밀리기는 했지만 산지사방에서 모여든 왜적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일 부대로 대적하기는 육지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이순신은 한 지역에서 싸우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반드시 옮겨간다. 참고로 숭실대본을 보기로 한다. 이순신은 전라도 신도하는 곳에서 마득시를 쳐부순 뒤,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쳐들어오는 마다시를 동도로 유인해 쳐부순고, 집요하게 달라붙는 왜선을 한 산도에서 대파한다. 이외에도 어란포, 순천, 울진 등지를 옮겨다니며 설새없이 싸운다. 첫째 가닥이 이처럼 강하게 나타나므로 셋째 가닥에서 조성되는 불행도 이순신을 궁지에 빠트리지 못하며, 오히려 둘째 가닥으로 이행하게 하는 촉진제가 될 따름이다. 개인적인 불행에서 촉발되는 분노를 왜적을 무찌르는 힘으로 전환시킨 이순신 앞에 왜적 한 명이라도 살아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임진왜란은 이순신에 의해서 사실상 끝이 난다. 육지에서 시작된 전쟁은 바다에서 끝났고, 육지에서 조성된 긴장은 바다에서 풀어졌다.

김용서와 강홍립의 암투는 왜군과의 대결 이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원정과정에서부터 사사건건 의견 대립을 보이다 왜왕에게 억류된 이후로는 더욱 심한 의견 대립을 보인다. 김용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왜왕을 처치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데 비해, 강홍립은 어차피 고국에 돌아가기 어려운 판국이니 주어진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여긴다. 억류된 처지인지라 왜왕의 말은 무엇이든 들어야 한다. 김용서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마지못해 왜왕의 청혼을 수용하고, 강홍립은 부귀영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꺼이 왜왕의 청혼을 수용하게 된다. 각기 왜국의 王女와 결혼하고 살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좁혀질 줄 모른다. 삼 년이 지난 뒤 상호 의견을 타진할 기회를 갖는데, 여전히 김용서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으니 왜왕을 죽이고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강홍립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한다. 김웅서가 준열하게 나무라자 강홍립은 사람의 마음은 다 각각이라고 응수하며 뺨기를 박는다. 사람의 마음이 한 가지여야 한다는 쪽과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므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¹⁰⁾.

김웅서가 명분을 중시한다면 강홍립은 실리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명분이나 실리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는 분별하기가 어렵다. 명분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실리를 택하는 것이 못마땅할 것이고, 실리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명분을 택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두 사람의 주장이 그 나름대로 뚜렷한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인데, 君主를 생각하는 바까지 판이한 것이 이채롭다. 김웅서에게 군주라면 오직 조선 임금뿐이지만 강홍립에게는 경우에 따라 군주가 조선 임금일수도 있고 왜국 임금일 수도 있다. 강홍립이 왜국 원정을 하기 전까지는 조선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로웠기 때문이고, 왜국에 와서는 왜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롭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웅서와 강홍립의 정왜장면은 명분을 중시하는 쪽과 실리를 중시하는 쪽과의 갈등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정왜장면이 펼쳐져야 할 자리에 인물 간의 갈등이 대신하고 있으니 逸脫이라도 상당한 逸脫이다. 단편에는 이런 부분이 아예 없든가 있더라도 소략하기만 한데, 이 逸脫性이 명분과 실리라는 쟁점을 부각시키고 전해가 다른 독자들을 끌어들여 패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명당과 왜왕의 대결은 영웅과 졸장부의 대결이라고 할 만큼 힘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사명당은 육도삼략을 통달하고 팔만대장경과 둔갑술에 능통하지만 이에 맞서는 왜왕은 이런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측근에 있는 신하의 말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이다. 애초부터 설정된 능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싸

10) 김웅서가 강홍립을 죽이고 자결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만다. 김웅서가 강홍립을 죽인 것을 두고서 사람의 마음이 한 가지여야 한다는 쪽이 우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김웅서도 결국 강홍립으로 인해 죽고 말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여러가지일 수 있다는 쪽의 주장도 결코 만만치 않다.

우기도 전에 결과는 이미 예상된다. 그런데도 서술이 상당히 길어진 것을 보면 장편에서 노리는 바가 별도로 있다는 증거이다. 사명당은 왜군과 한 번도 접전하지 않고 오로지 왜왕과 대결하는데, 이를 눈여겨 볼 만하다. 왜군은 조선에서 이미 궤멸되었다고 한지라 또 다시 왜군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왜군 본토에 들어가서 싸운다고 한다면 왜왕과 싸운다고 해야 읽을거리가 되리라는 전승자의 의식이 작용했는지 모를 일이다. 어쨌든 간에 사명당과 왜왕의 대결을 통해 탁월한 능력을 지녔을 법한 왜왕이 알고보면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명당과 왜왕의 대결은 김웅서와 강홍립의 암투를 어긋난 방향에서 이었다. 김웅서와 강홍립의 경우 명분과 실리가 팽팽히 맞서다 보니 자멸의 길에 이르렀는데, 사명당은 엉뚱하게도 왜왕을 항복시키므로써 이들의 원수를 갚는다고 했다. 조선에서는 김웅서와 강홍립의 패배를 들어 정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왜국에서는 김웅서와 강홍립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왜왕의 무릎을 꿇린다. 정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장면을 사명당이 정왜의 역사로 연결지운 셈이다. 사명당이 김웅서와 강홍립을 정왜의 역사로 끌어들이므로써 명분과 실리의 측면에서 따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사명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임진년의 복수이고, 사명당이 바라는 실리는 개인 능력을 발휘하고 얻는 명성이다. 사명당은 명분과 실리를 함께 아우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명분이 앞서는 것도 실리가 앞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결과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김웅서와 강홍립의 정왜장면으로 인해 패싸움을 벌이는 독자라면 사명당 정왜장면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보다는 조화와 융합이 문제 해결의 단서라는 전승자의 목소리도 듣게 될 것이다.

장편에서 내세우는 네 가지의 읽을거리를 살펴 보았다. 왜국의 밀정 파견과 조선의 대응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고, 이순신의 활약은 임진왜란 중이고, 김웅서와 강홍립의 암투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제1차 정왜에서이고, 사명당과 왜왕의 대결은 제2차 정왜에서 이루어지므로 네 가지 읽을거리는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

중, 제1차 정왜, 제2차 정왜에서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첫번째 읽을거리에서는 조선을 침략하려는 왜국의 야욕과 왜국을 견제하려는 조선의 노력이 대립되고, 두번째 읽을거리에서는 이순신이 탁월한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왜적을 물리쳐서 전란을 사실상 종결짓고, 세번째 읽을거리에서는 김응서의 명분과 강홍립의 실리가 팽팽히 대립하고, 네번째 읽을거리에서는 사명당이 실리와 명분을 아우르면서 조화와 융합을 이루는데 이것이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 중, 제1차 정왜, 제2차 정왜의 서술 전체가 순차적으로 긴장, 이완, 긴장, 이완의 구성이 되도록 한다. 이 점에서 여러 사건을 재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시종일관 긴장감을 주고자 하는 단편과는 다르다.

장편은 공통적 읽을거리로 인해 긴장-이완-긴장-이완의 느낌을 주는 4단 구성이 된다. 전반부의 긴장-이완은 조선에서 왜적을 통쾌하게 몰아내는 데 초점이 있고, 후반부의 긴장-이완은 왜국에서 왜왕을 통쾌하게 항복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긴장-이완-긴장-이완을 유발하는 읽을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고리지워지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져 버린다면 균형이 무너져서 독자의 흥미를 절감시키고 말 것이다. 공통적 읽을거리의 구성원리가 바로 여기서 발견된다. 패배와 승리의 읽을거리를 교차적으로 배열하여 긴장-이완의 흐름을 증폭시키고 독자에게 흥미를 부여하는 것이 공통적 읽을거리의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4. 개별적 읽을거리의 表現美學

장편이 지향하는 바는 두 말할 것 없이 읽을거리의 흥미이다¹¹⁾. 독자에게 흥미를 제공하려는 읽을거리는 상당히 다채로운데,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읽을거리가 있는가 하면 이본마다 개별적으로 내세우는 읽을거리도 있다. 장편에서 공통

11) 이에 대해서는 金泓均,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韓國學大學院 博士論文, 1990), 69-110쪽을 참고할 만하다.

적으로 내세우는 읽을거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니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내세우는 읽을거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별적으로 내세우는 읽을거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물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긍정적 형상화라 하더라도 단순히 대상 인물을 추켜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 형상화라 하더라도 무조건 대상 인물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인물의 속성을 표현하여 자칫 지리한 느낌을 가질 독자들을 긴장시키고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장편에서 긍정적 형상화와 부정적 형상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되 단편과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한다.

긍정적 형상화로 제일 먼저 손꼽을 수 있는 인물은 의병으로 나서는 자들이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질 때 기병해야 한다는 것이 임진록 전체에서 강조되는 윤리인 만큼 의병이 긍정적으로 형상화될 수밖에 없다. 박순호본(243)에서는 단편에 전혀 나타나지 않던 임봉연, 소춘실, 유성, 권송권, 김득원이 의병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전란 전에 하던 일도 각기 다르고 전란 중에 펼치는 의병활동도 각기 다르다. 임봉연은 읍촌에서 명망이 자자하지만 한미한 처지인지라 크게 쓰이지 못하던 중 전란이 나자 마을 사람을 규합하여 화악염초로써 왜적의 침입을 저지했고, 소춘실은 喪妻한 후 몇 년 동안을 머슴살이로 지내며 겨우 연명하던 중 전란이 나자 피난민을 모아 왜적과 싸웠고, 유성은 부친의 유배지에서 陪從하던 중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활과 돌로 무장하여 적진을 향해 나아갔고, 권송권은 팔자 불행하여 품팔이꾼으로 이 고을 저 고을을 전전하던 중 왜란이 나자 전사한 장수의 갑주를 벗겨 입은 뒤 장수 노릇을 대신했고, 김득원 또한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던 중 난리 소문을 듣고 적진에 잠입해서 밥에 독약을 넣어 다수의 왜졸을 죽였다¹²⁾.

- 12) 등장인물의 기병하는 과정을 야단스럽게 늘어놓은 데 비하면, 전장에 나선 뒤 어느 정도의 전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빈약하다. 화악염초를 터뜨리고 활과 돌로써 저항하고 밥에 독약을 넣는 방식으로 대승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단편에서는 하층 정수가 한 번 나서서 칼을 휘두르면 수십 수백의 목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승리 자체를 부각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전란 전에 하던 일이나 전란 중의 활동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점도 적지 않다. 명망이 있어도 크게 쓰이지 못하는가 하면 머슴살이나 품팔이를 해도 먹고 살기 어렵다. 세상을 비판하고 불평을 지낼 법한데도 전란이 일어나자 자원해서 의병이 되거나 戰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다. 하층에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비참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과 전쟁이 발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활동한다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층인이 세상에 대한 불만의 화살을 왜적에게 돌렸다고 보기에는 메꾸어야 할 간격이 너무 넓은 탓이다. 팔자 기구한 하층인이지만 향토를 생각하는 마음이 평소부터 남달랐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게 불만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만의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족하다. 하층인이 전장에 나서는 것이 긍정할 만하다는 주제를 마련해 놓고 생활고를 장황하게 늘어놓음으로써 하층인의 의병활동이 숭고한 면을 지니기보다는 비장한 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¹³⁾. 전승자는 세상을 비판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위해 싸운다는 기묘한 설정으로 출전 자체에 흥미를 부추기려 한 것이 아닐까 한다.

경승도 현풍씨의 객지운이라 하는 사람니 잇시되 지식니 잇는고로 왜적이 조조 불난흔을 보고 도탄으로 서월을 보너더니 문듯 박겨 혼 사람니 와 찾거을 잇찍은 겨서연 삼월니라 객지운 너심 성주목수 김원길인 줄 알고 짐지 너당의 누워 이지 아이하고 노복으로 하여곰 접디하고 온 연고를 알아오라 하여겨을 노복니 나아가 외당의 안치고 월 우리 노야 지금 병환의 골물흔와 집의 오신 손을 디접지 못하였건이와 무삼 연고로 찾는잇가 원길리 뒤월 나난 성주목수러니 너의 노야을 보여와거이와

13) 전승자가 이들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비꼬고자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어느 누구도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비판받을 현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았다. 이로써 전승자의 의도가 현실비판에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만 하층인들의 궁핍을 소재로 삼을 만큼 궁핍문제가 사회에 만연했음은 엿볼 수 있다.

악가보니 돌나막신이 혼 겨리가 청으 노여신이 그겨설 뉘가 능히 신고 단니난다 혼니
 노복이 티왈 우리 노아겨서 신닌이다 혼겨을 목스 너십으 티경혼야 괴외혼 씨을
 타서 그 신을 신고 시엽혼니 척촌도 옹기지 모홀너라 목스 너십으 괵지운을 두여
 혼더라 잇튼날 괵지운이 김원길 다리고 삼가 황운산의서 의병 수만 군을 일우워 힘군
 혼야 진주티여의 진을 치고 적병으로 더부여 싸호더이(박순호본243, 62-63쪽)

인물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되 비속한 방향으로 접근해 들어간 것도 있다. 인용한 대목이 바로 그런 것이다. 괵재우가 지식이 있다고 했으니 상당한 체신과 범절을 갖추었을 법한데, 목사가 방문하자 일부러 나가지 않고 노복으로 하여금 접대케 한다. “너십 성주목스인 줄 알고”도 나가지 않은 이유는 목사에게 집안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이다. 목사가 청에 놓인 돌나막신을 신기하게 여겨 그 임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자신이 한 번 신어보기까지 하는 여유가 이래서 생긴다. 목사는 괵재우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괵재우의 휘하에 활동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괵재우가 긍정적으로 고려짐을 대변에 알아차릴 수 있다. 지식있는 자로서 체신을 증시해야 할 괵재우가 술책을 써서 상충인을 제압해 버린 것은 단순한 흥미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층인이 상충인을 압도하는 경우는 강홍립과 제주목사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¹⁴⁾. 강홍립과 제주목사의 경우나 괵재우와 상주목사의 경우는 지체가 낮은 쪽이 상대적으로 지체가 높은 쪽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강홍립이나 괵재우의 상대가 목사이고 목사를 이용해 왜적과 싸울 군사를 얻으려 하므로 지체가 낮은 쪽이 지체가 높은 쪽을 압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이한 것은 괵재우는 강홍립의 경우보다 상대방을 조롱거리로 삼는 경향이 심하다는 점이다. 강홍립은 상황을 긴박하게 느끼고 괵재우는 상황을 비교적 여유 있게 느끼면서 목사를 상대하고 있는데, 상황인식의 차이에 따라 상대방을 처리하는 바가 달라진다. 현실은 분명히

14) 辛泰洙, 壬辰錄 天命觀의 性格과 機能, 『嶺南語文學』19, (嶺南語文學會, 1991), 202-203쪽 참고

급박하다. 그런데도 객재우가 당장 전쟁터로 나가기보다는 재주목사를 압도하는데 여유를 부리는 것은 상충인을 철저하게 압도하자면 이런 방법외에는 없다고 느꼈을 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속는 줄을 모르도록 하여 압도해 버리는 객재우가 단순히 힘으로 상대방을 위압하는 강홍립보다도 더욱 고심스러울 수 있다. 상대방을 속이는 기발한 착상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깊이 있게 간파하고 이용하느냐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정이 유정을 보고 네로써 더접히며 고금디란을 의논하니 문답이 창히 갓지라 청정이 더히하여 머무르시 청정이 더접을 관곡히 하니 유정이 도라갈 의사를 심각하고 문득 청정더러 문왈 왜국이 도선으로 더브러 인국이여늘 엇디 침노하미 이러듯 심하노 청정이 왈 도선이 스스로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명을 순종치 아니므로 이 자경의 니르러시나 이제라도 도선 국왕이 우리를 위하야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대명을 치고 인하야 우리나라를 섬겨 항복하면 도로 성지를 주고 왕을 봉하야 다시 침노치 아니리라 유정이 발연변식 왈 도선왕은 더원흔 님군이시고 또 도선이 일본으로 더브러 비컨디 더국이라 체통이 유별하고 일본 관직은 본디 미천흔 사림으로 그 님군을 더치고 스스로 서니 이는 턱히의 큰 도적이라 엇지 대국 님군이 소국 도적을 섬기리오 꾸짖기를 마디 아니흔디 청정이 대로하야 좌우를 꾸지져 선문 밧기가 버히라 혼디 유정이 요곰도 두리느 빗치 없고 양면대쇼 왈 니 잠간 당군을 시험히 미러니 진실노 쇼장뵈로다 혼 사림이 도적이라 하면 도적이 되며 성인이라 하면 성인이 되느가 턱해가 성인이라 하야야 성인이오 턱해가 도적이라 하야야 도적이 되느니 이는 적은 필뵈라 엇디 더스를 일우리오 하고 꽤히 거러나가니 청정이 도로쳐 무류하야 친히 느려가 무스를 꾸지져 물니치고 유정의 수미를 닛그러 장동의 드러와 사례 왈 니 거의 신승을 해홀 번 하엿느니 그디는 모로미 허물치 말고 안심하라 혼디 유정이 웃고 손사하더라(송실대본 권2, 18-20쪽)

상대방을 기묘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명당이 청정의 진중에서 유점사로 돌아가려 하나 여의치가 않다. 청정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놓기 때문인데,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억류되어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처지에서 사명당은 느닷없이 왜국이 왜 조선을 침범했느냐고 묻는다. 청정이 나름대로는 유창하게 답변해내자 사명당은 그 말꼬리를 잡아 청정의 비위를 거슬리는 발언만을 계속 쏟아놓는다. 왜국 관백의 무도함을 낱날이 열거하는가 하면 조선이 왜국보다 대국이라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 청정이 화를 내는 것이야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청정이 목을 베려고 하자 사명당은 양천대소하며 도적과 성인의 문제를 들먹인 뒤 “너 잠간 당군을 시험”했다고 한다. 관백을 옥하다가 청정 개인을 시험하려고까지 했으니 온전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청정이 도로혀 무류한”여 사명당을 신중으로 돌아가게 한다. 사명당은 절에 돌아온 뒤 중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다. 전체 즐겨리는 사명당이 억류되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와 의병을 일으킨다는 내용에 불과하지만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가 않다.

사명당이 청정을 압도하지 않고서는 유점사로 돌아올 수 없다. 어떻게 청정을 압도할 수 있었겠는가 문제인데, 문면을 통해서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 청정과 사명당과의 관계를 표면에서 보면 청정은 사명당에 비해 시종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명당이 관백을 비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청정은 사명당보다 우위에 있었다. 청정이 화를 내자 장군이 어느 정도 화를 내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으며 탄전을 피운 것만 보아도 상대적인 우위를 가늠할 수 있다. 사명당이 부득히 전의 말을 철회하고 우스갯소리로 대치했지만 내심으로는 전의 말을 여전히 긍정하기에 반전의 계기가 조성된다. 관백은 본시 미천한 사람으로 출세하여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은 사명당이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해서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청정은 사명당이 일보 후퇴한 것으로 여겨 안심하고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에 대해 찬양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난다. 청정은 사명당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는 줄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압도당하고

있는 줄을 끝내 모른다는 점에서 사명당의 말솜씨가 더욱 빛이 난다¹⁵⁾.

부정적 형상화의 대표적 사례로서 먼저 원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원군은 원래 성품이 악한 편은 아니나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순신을 사사건건 모함한다. 이 점은 단편과 장편이 다를 바 없지만 장편에서는 시기심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군병과 군기를 다 곳치고 제의 고죽티로 히흔이 일마닥 치지 안이함미 업더라 날마다 술먹기와 풍악만 일삼고 형벌을 심써 엄숙키 하야 군비를 칙략키 혼이 군민이 다 탄식하야 월 만일 도적이 오면 진문을 구지닷고 도망히기를 의논” (정신문화연구원본231, 58쪽) 한다고 했다. 군병과 군기를 다 고치고 재 고집대로 군무를 집행하는 것이야 원군의 결점이라 하기 어렵다. 이순신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군병과 군기를 집행하지만, 우두머리가 그만한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군민이 탄식하며 도망가기를 의논한다는 데 있다. 이순신의 휘하에서 열심히 싸우던 군사들이 원군의 휘하에서는 도망가려는 것을 볼 때 원군의 시기심이 도를 지나쳐 얼마나 자심한지를 추측하고도 넘는다. 전승자가 일방적으로 원군을 비난하기보다는 군민을 내세워 탄식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원군의 결점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었다.

차야의 적선이 크게 니르러 군수를 스면의 뵈고 일진을 티살하니 군의 군식 대란 하야 네 녀흐로 허여지느니라 원군이 대경하야 쇼선을 토크고 도망하야 히변 언덕의 을나 대구로 다라나더니 몸이 비툼하야 능히 못지 못하느니라 길?의 소나무 허리를 안고 감히 니디 못하더니 종재 다 허여디고 혹 니르디 도적의 해를 만나다 하고 혹은 먼니 도망하다 하니 그 진가를 아디 못홀니라(충실대본 권2, 91-92쪽)

15) 가면극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봉산탈춤 양반과장에서 양반과 말뚝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데, 양반 자신은 말뚝이에게 이겼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조동일은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203쪽에서 현실의 싸움을 희극적으로 집약한 것이라고 했고, 金大幸은 諷刺의 表現의 文法, 『古典文學研究』3, (韓國古典文學硏究會, 1986), 49쪽에서 객관화에 의해 웃음을 유발하는 어법이라고 했다.

원균의 패배장면이 기술된 대목이다. 왜적이 사방에서 몰아치자 小船을 타고 도망가기에 바쁘지만 몸이 비둔하여 멀리 가기가 어렵다. 길가의 소나무를 안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데서 몸이 얼마나 비둔한지를 역력히 알 수 있다. 전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장수가 부하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준열한 비판의 언사가 이어질 법한 자리에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원균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만 한다. 원균의 거동이 묘사되면 될수록 독자의 측면에서는 직위와 거동의 차이에서 생기는 간격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터이다. 이순신을 몰아내고 삼도수군통제사 자리를 차지했으면 나름대로 적침을 방어할 계책을 가질 법한데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 일선에 나서서 싸우는 장수라면 몸이 날렵할 법한데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전승자는 원균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전히 언급하지 않은 채 종자의 말을 빌어 왜적에게 죽었는지 도망갔는지의 진가를 모르겠다고 했다. 몸이 둔한 원균이 도망가지 못하고 죽었을 것은 너무나 뻔한데도 전승자는 가급적 먼 거리에서 원균을 그리고자 한다.

왜왕이 서안을 치고 방성대곡 왈 방금 수세 여츠하니 경등은 넘너터 말나 내 엇지 만민을 구치 아니하리오 하고 칼홀 드러 주문코져 하거늘 신하 호걸산이 급히 드러와 읍주 왈 던하는 아직 옥테를 보중하쇼서 하고 칼홀 쥐고 문무익관이 혼 가지로 수명당 압히 나아가 복지 왈 쇼국왕이 무도하야 부쳐님을 모르고 수죄를 치어스오니 복절 부쳐님은 덕틴을 드리워 쇼국왕의 죄를 사하시고 억만창성을 슬오쇼서 하고 일시의 머리를 조아 통곡하며 일제히 손을 고초아 특슈하거늘 수명당이 대로 즐알 새니 왜왕의 머리를 버혀드려 싱녕의 도탄을 면하라 익관이 고두 사알 쇼신동이 원컨 디 왕명을 디신하여 각각 머리를 버혀지이다 하거늘 (송실대본 권3, 86쪽)

왜왕 또한 부정적 형상화의 사례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사명당이 왜국 전부를 물바다로 만들자 왜왕은 자결하려고 하고, 호걸산을 비롯한 문무백관은 임

금을 살리려고 갖은 애를 쓴다. 임금을 살리려는 신하들의 충성이 눈물겹지만 사명당에게 간청하는 말에 문제가 있다. “쇼국왕이 무도하야 부처님을 모르고 스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임금을 살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소국이라고 한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해도 임금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정도가 심하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임금이 죄가 있고 그 죄는 죽을 죄에 해당됨을 실토한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임금이 차라리 자결을 하거나 신하들이 사명당에게 임금의 죄없음을 끝까지 주장했더라면 조선을 침범했던 왜국인대웠을지도 모른다. 왜국 조정의 사기가 꺾일수록 사명당의 요구는 더욱 가중되지만 하는데, 신하들은 무조건 왜왕을 다그치고 왜왕은 속수무책으로 따를 뿐이다. 사명당이 降書를 바치라고 하자 신하들이 임금을 부추겨 항서를 쓰게 하고, 인피 삼백 장을 바치라고 하자 또 신하들이 임금을 부추겨 인피 삼백 장의 진공을 약속하게 한다. 임금은 목숨을 건졌으나 목숨 이상으로 잃은 것이 많았다.

체통을 지키기 위해 자결하려고 하다가 살기 위해 비굴한 짓도 서슴치 않는 왜왕은 조화가 깨진 인물로써 웃음거리가 되기에 족하다¹⁶⁾. 왜왕의 측근에 있는 신하들 또한 다를 바 없다. 임금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사사건건 임금에게 비굴한 짓을 하도록 다그치기도 함으로써 이 또한 조화가 깨진 인물로써 웃음거리가 된다. 단편에서는 신하라고는 한 명도 등장하지 않으며, 단지 사명당이 왜왕을 제하에 꿰리고 일방적으로 몰아칠 뿐이다. 신하가 등장하여 사명당과 왜왕 사이에 끼어든 것은 장편에서만 나타난다. 장편에서 신하가 등장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낼 수 있다. 조화가 깨진 신하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신하의 말을 끝이 곧대로 듣는 왜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왜왕 자체가 이미 조화가 깨진 인물인데, 신하와의 관계를 통해 그런 모습이 재확인됨으로써 왜왕의 부조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신하의 개입은 왜왕을

16) 이와같은 논의에는 金大幸, 『詩歌詩學研究』, (이화여대 출판부, 1991), 430쪽이 큰 도움이 된다.

바라보는 독자에게 거리감을 지니게 하고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셈이다.

장편에서 긍정적 형상화와 부정적 형상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해보았다. 긍정적 형상화에는 대상인물의 행위가 直敘되는 데 비해, 부정적 형상화에는 대상인물의 행위가 迂迴的으로 서술된다. 긍정적 형상화에서의 객재우와 사명당을 보면 기발한 착상으로 상대를 속이되 어떻게 상대가 속는 줄을 모르도록 하는 지에 줄곧 초점이 주어져 있다.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담, 속임수와 같은 술책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나, 인물을 직서하는 데 다소 거리가 먼 세계의 모순 따위는 들추려 하지 않는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층인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법한 모순을 왜적에게 돌려버린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 부정적 형상화에는 작품 내에서 대상인물을 격하시키는 인물이 등장한다. 원균의 경우에는 군민과 종자이고 왜왕의 경우에는 그의 신하들인데, 이들 때문에 원균이나 왜왕은 더욱 심한 웃음거리로 떨어진다. 군민, 종자나 신하가 자기 전전을 격하시키겠다는 자각이 있게끔 설정되었더라면 가면극, 판소리계 소설의 방자형 인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나 원균이나 왜왕이 워낙 부정적인 인물인지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긍정적 형상화에서는 전승자와 대상인물의 거리가 가깝고 부정적 형상화에서는 전승자와 대상인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다. 전승자와 대상인물의 거리가 가까운 긍정적 형상화는 傳, 行狀과 같은 글에서 볼 수 있으나 재담, 속임수와 같은 술책이 구사되는 점에서 전, 행장에서보다는 비속성이 훨씬 강하다. 임진록 장편의 비속성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비속해야만 세계를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고 궁벽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므로 비속한 것이 사실은 숭고한 것임을 보여준다. 전승자와 대상인물의 거리가 먼 부정적 형상화는 권능과 위세를 지닐 법한 인물이 알고보면 형편없는 졸장부임을 밝히고 있다. 숭고하기는 커녕 비속한 면모마저 없게 하고 비속에서 숭고로 통할 수 있는 길마저 끊어 놓았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민중예술에서 흔히 나타나는 戲化的 傾向과 상통한다.

5. 읽을거리 設定의 意義

공통적 읽을거리와 개별적 읽을거리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런 읽을거리의 設定이 어떤 意義를 지니는지 검토할 차례가 되었다. 읽을거리는 경우에 따라 양상이 다르지만 古典小說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며,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전승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읽을거리 설정의 의의를 찾는 작업이란 앞에서 따진 읽을거리의 내용을 총괄하면서 이것이 다른 소설의 읽을거리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통적 읽을거리에는 단편의 내용을 뒤집거나 보다 강조하거나 한다. 왜국밀정과 조선의 이인의 대결, 김응서와 강홍립을 통해 나타난 실리와 명분의 대립은 단편의 내용을 뒤집는 것이고, 이순신과 사명당에 대해 다른 부분은 단편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밀정을 상대하는 자는 단편의 경우라면 국방에 책임을 진 조선의 장수이어야 할 터인데 장편에서는 초야에 파묻힌 이름없는 이인이 등장함으로써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김응서와 강홍립은 단편의 경우 오로지 왜국을 정벌하기 위해 떠나는 데 비해 장편에서는 왜국 정벌과는 다른 명분과 실리의 팽팽한 대립양상을 드러낸다. 이순신은 장편에서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단편에서 보여주는 능력 이상을 발휘한다. 장편에서는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이순신을 통해 단편의 내용을 보다 확장 강화하고 있다. 사명당은 단편에서 단순히 왜왕을 항복시키는 데 머무르지만 장편에서는 여기에서 김응서와 강홍립의 어긋난 정태장면까지 되돌려 잡고, 나아가서는 임진록 전체의 분위기를 보다 확고하게 정점에 올려놓는 기능을 한다.

단편은 단순서술을 지향하고 장편은 복합서술을 지향하는 속성 때문에 차이가 필연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장편이 단편에 비해 상반된 내용을 지니고, 보다 확대 강화된 내용을 지니는 것은 단순히 분량이 많고 적은 데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분량 많은 이본이 분량 적은 이본과 내용이 같을 수 있고,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라도 상반된 것이나 확대 강화된 것 중 어느 한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편에서 나타나는 상반성은 단편을 부정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면 장편에서 나타나는 확대 강화는 단편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을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수용했다는 것은 전승자의 시각이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나, 단편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들추어내는 데서 나온 상반성이고 확대 강화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 읽을거리는 단편의 내용을 심각하게 의식하는 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편에 매몰된 독자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역사를 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가지도록 한다.

이에 비해 개별적 읽을거리는 공통적 읽을거리와는 달리 작품 내의 환경을 당대 현실에서 구한다. 의병으로 나선 자들은 궁핍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생활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궁핍은 소재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지 않고 있으나 이 또한 당대 현실을 반영한 것임은 틀림없다. 객재우는 지체가 낮은 현실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지체가 높은 목사를 마음껏 조롱하여 자기의 의도를 관철하고, 사명당은 억류된 현실에 있으면서도 청정을 조롱거리로 삼으며 자기의 의도를 관철한다. 원균은 이순신의 자리를 감당할 능력을 지니기 이전에 신체적 조건에서 장수와는 어울리지 않고, 왜왕은 왕으로서의 능력을 지니기 이전에 신하와의 관계에서 이미 체통을 잃어버리고 있다. 의병으로 나서는 자들, 객재우, 사명당의 경우에서는 주어진 환경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원균, 왜왕의 경우 인물이 주어진 환경에 어느 정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제시된다. 의병으로 나서는 자들, 객재우, 사명당은 긍정적 형상화의 사례이고 원균, 왜왕은 부정적 형상화의 사례이니, 긍정적 형상화나 부정적 형상화나에 따라 주어진 환경의 기능이 달라진다.

환경과 인물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면 환경이 곤궁하게 제시될 때는 인물의 됬됨이가 두드러지고, 환경이 순탄하게 제시될 때는 인물의 됬됨이가 보잘것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긍정적 형상화에서는 인물이 단적인 환경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개인의 충의를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비해,

부정적 형상화에서는 인물이 열려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다양하게 지니도록 한다. 폐쇄된 환경이 제시되어 인물의 단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열려진 환경이 제시되어 인물의 충의를 드러내는 셈인데, 폐쇄된 환경은 조선백성이라면 전란 당시에 누구나 겪었을 당대현실이기애 그 이상의 의미로 轉移될 수 없지만 열려진 환경은 重責의 자리, 至高한 자리이기애 그 이상의 의미로 전이될 여지가 생긴다. 이를테면 열려진 환경에 처해 있는 원균이나 왜왕은 전승자가 본래 의도한 대상일 수도 있고 원균이나 왜왕을 통해 무능한 조선의 장수 또는 무능한 조선의 임금에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단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과 인물의 대응은 장편이 당대현실을 작품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공통적 읽을거리의 단편의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특징이 있고, 개별적 읽을거리의 당대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특징이 있다. 단편의 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다. 단순히 서술의 분량만을 늘리는 것은 독자를 의식하는 장편으로서 지향할 바가 못 된다. 공통적 읽을거리에서 나타나는 英雄相에 대한 話素와 군대군데에서 다채롭게 마련된 戰術, 戰法の 挿話라든가 개별적 읽을거리에서 나타나는 戲化的 傾向은 이런 요청의 결과로 보인다. 공통적 읽을거리의 임진록이라는 테두리를 지탱하려는 속성을 지녔다면 개별적 읽을거리는 임진록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공통적 읽을거리가 개별적 읽을거리에 비해 더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 읽을거리가 다채로울 수록 공통적 읽을거리가 생동감을 지니게 되고 사실성을 획득하므로 장편에서는 공통적 읽을거리 못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그러고 보면 장편이 단순히 분량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 읽을거리와 개별적 읽을거리를 통하여 단편 임진록, 여타 영웅소설의 내용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민간전승의 표현방식까지 다각도로 받아들임으로써 現場感을 획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읽을거리의 설정은 이본을 많이 지닌 고전소설의 후대 이본에서 적지 않게 나타난다. 장경전 후대 이본이 판소리계소설에 접근한다든지¹⁷⁾, 두껍전의 특

정대목이 가사체인지 판소리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律文形式으로 나타난다든지¹⁸⁾, 장끼전 이본 중에 가사체로 된 것이 상당수 있다든지¹⁹⁾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이다. 소설작품 내에 다른 갈래의 문체, 그것도 하층민이 담당층이었을 갈래의 문체가 혼입됨으로써 世態가 더욱 뽕진하게 描寫되고²⁰⁾ 문학과 사회의 거리가 한층 좁혀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소설들은 형성과정이나 구조, 주제가 임진록과 같을 수가 없지만, 다양한 문체를 통해 읽을거리를 조성하고 독자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임진록과 軌를 같이 한다. 임진록 장편은 장경전, 두껍전, 장끼전과 동일인상에서 따질 수 있는 면도 있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장경전, 두껍전, 장끼전은 이본 간에 분량면에서 거의 일정하고 설화, 가면극, 판소리의 표현방식을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읽을거리가 설정되기는 해도 임진록처럼 공통적 읽을거리와 개별적 읽을거리와 같은 것이 별도로 설정되었으리라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임진록 장편이 지닌 의의가 분명해진다. 임진록 장편은 공통적 읽을거리를 통해 단편의 서사체계를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개별적 읽을거리를 통해 민간전승을 다채롭게 수용하여 독자들의 새로운 嗜好를 선도해가는 데 다른 어느 소설보다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록이기에 장편이 이런 의의를 지닌다고 한다면 현상론에 지니지 않는다. 임진록 자체가 轉寫될수록 주제가 더욱 강해지는

17) 서인석, 장경전,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439-443쪽 참고.

18) 필자가 소장한 필사본 38쪽 축집전에서 歌辭體라고 생각되는 구절을 인용해 본다. “신방을 근금할지 능변화로 벽송이 청농화 쉼뽕뽕 각죽중관 소리중관 방안이 치린 불죽시며 순경 터경 각숙명 인물병풍 요강티와 여긔저기 던저두고 부금침 불죽시며 초록공단 기죽다라 뽕공 단릉전 시저두고 실낭금침 불죽시며 주공단화 침병은 방안이 둘너늑코—”(9-10쪽). 이 외에 律文이되 가사체인지 판소리체인지가 애매한 구절이 몇 군데서 발견되나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겠다.

19) 權寧浩, 장끼전 研究의 反省과 展望, 『語文學』52, (螢雪出版社, 1991), 24-27쪽 참고.

20) 洪興九, 조선 후기 세태묘사가사 연구, (韓國學大學院 碩士論文, 1985), 19-23쪽 참고.

생명력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 요소를 끌어들이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담당층의 노력이 뒤따랐기에 장편으로서의 존재가 가능했을 것이다. 장편의 의의는 임진록 자체의 강인한 전승력과 시대상황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려는 담당층의 창작행위가 만나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6. 結 論

지금까지 임진록 장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장편일수록 단편에 비해 특정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었을 것 같고, 장편에 없는 내용이 단편에는 많이 담겼을 법도 한데, 임진록이라는 이름 하에 단편과 장편이 공존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에 필자는 단편에 비추어 장편이 생겨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고, 장편에 내재한 질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록 이본 간에는 단편, 중편, 장편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분량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중에서 장편에 해당되는 이본은 4종이다. 長篇化 要因은 읽을거리의 설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읽을거리가 다채롭게 마련될수록 장편화 경향을 띠고, 읽을거리가 축소될수록 중편, 단편의 경향을 띤다. 읽을거리가 모두 흥미거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읽을거리를 설정하되 흥미거리가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생긴다. 장편에서는 공통적 읽을거리와 개별적 읽을거리를 설정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공통적 읽을거리는 왜국의 밀정 파견과 조선 異人의 대응, 이순신의 활약, 김응서와 강홍립의 암투, 사명당과 왜왕의 대결, 이 네 가지이다. 네 가지 읽을거리는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 중, 제1차 정왜, 제2차 정왜에서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 중, 제1차 정왜, 제2차 정왜의 서술 전체가 순차적으로 긴장, 이완, 긴장, 이완의 구성이 되도록 한다. 이 점에서 여러 사건을 재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시종일관 긴장감을 주고자 하는 단편과는 다르다.

셋째, 개별적 읽을거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물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긍정적 형상화라 하더라도 단순히 대상 인물을 추켜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 형상화라 하더라도 무조건 대상 인물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인물의 속성을 표현하여 자칫 지리한 느낌을 가질 독자들을 긴장시키고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개별적 읽을거리에서 나타나는 형상화라고 해서 단편의 주제와 판이하지는 않다. 임진록 장편의 전승자들은 긍정적 형상화와 부정적 형상화가 기존 주제나 구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인물형상화를 철저히 흥미거리로 되돌리려 한다.

넷째, 임진록 장편은 공통적 읽을거리를 통해 단편의 서사체계를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개별적 읽을거리를 통해 민간전승을 다채롭게 수용하여 독자들의 새로운 嗜好를 선도하는 데 다른 어느 소설보다 적극적이었다. 읽을거리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古典小說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며,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전승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진록 장편에서는 다른 고전소설의 경우보다 읽을거리 설정이 독특한 편인데, 작품 자체의 강인한 생명력도 있었겠지만 시대상황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려는 담당층의 창작행위가 다른 어느 경우보다 더 강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參 考 論 著

- 權寧浩, 장끼전 研究의 反省과 展望, 『語文學』52, (螢雪出版社, 1991)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7)
 金大辛, 詩的 表現의 文法, 『古典文學研究』3, (韓國古典文學研究會, 1986)
 —, 『詩歌詩學研究』, (이화여대 출판부, 1991)
 金泓均,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韓國學大學院 博士論文, 1990)

金興圭,『韓國文學의 理解』, (民音社, 1986)

徐仁碩, 장경전,『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辛泰洙, 壬辰錄研究의 現況과 展望,『문학과 언어』11, (文學과 言語研究會, 1990)

林哲鎬,『壬辰錄研究』, (正音社, 1988)

趙東一,『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洪興九, 조선후기 세태묘사가사 연구, (韓國學大學院 碩士論文, 1985)